



🖨️ 프린트하기    ✕ 닫기

## "개발해야 하니 탄천 주차 안된다"는 서울시에 버스종사자들 '생계 걱정'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로 2021년 6월 탄천주차장 폐쇄  
대체부지 찾았지만 수년간 답보, 버스운송조합은 민간사업 공모로 해결 제안

문정우 기자    mjw@mtn.co.kr    2020/07/29 10:03



장맛비가 내리면서 서울 송파구 탄천주차장에 있던 차량들이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이동 주차해 텅 비어있다. (사진=뉴스 1)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사업으로 탄천주차장이 내년 폐쇄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탄천주차장을 이용하던 버스종사자들이 갈 곳을 마련하지 못해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달을 포함해 수차례에 걸쳐 서울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탄천 공영주차장 폐쇄 관련 행정처분 시행 사전예고'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연말까지 등록 차고지는 모두 이전해야 한다는 통보다. 대체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업체는 운수업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린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탄천 주차장은 잠실~코엑스 일대를 개발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 6월 말이면 폐쇄된다. 서울아레나 개발로 인해 창동공영주차장으로 폐쇄 조치된다.

버스 종사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체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전세버스 600여대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서다. 이렇게 되면 조합은 약 2만5,000명이 생계를 잃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합은 5~6년 전부터 시와 시의회, 관련부서 등과 협력해 대체부지 마련을 추진해왔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시 버스정책과, 강남구청과 함께 세곡동 일대 개발을 협의했지만 주민민원으로 중단됐다. 서초나 강동, 강

서 등 대체부지를 찾았지만 각종 규제와 제한사항, 민원 등의 벽에 가로막혔다.

여기에 최근 정부 기조에 따라 서울 주택공급방안으로 유희부지 활용안이 거론되면서 대체부지 찾기는 더 어려워졌다.

이에 조합은 마곡 R&D센터, 어르신 복지증진 등 민간 공모사업을 통한 아이디어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주차장 관련 민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기존 개발사업에서도 민간사업자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았다"고 말했다.

서울 외 경기도 하남이나 성남 등에 부지를 마련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서울 등록 운수업체들은 서울 행정구역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약이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저작권자 © "부자되는 좋은습관 대한민국 경제채널 머니투데이방송 MTN">

---

 프린트하기 |  닫기